

LCD · LiB, 관세 철폐에서 열외

IT제품 200개 관세철폐 협상 잠정타결 ... 한국은 반대 후 철회

컴퓨터 및 반도체 등 IT(정보기술)제품에 대한 다자간 관세철폐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1조달러 상당의 IT제품 시장이 무관세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.

영국 파이낸셜타임스(FT)에 따르면, 7월14-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(WTO) 정보기술협정(ITA) 대사회회에 참석한 54개국은 IT제품 200여개에 대한 무관세 적용에 잠정 합의했다.

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“합의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7월 말 성공적인 최종합의가 나올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미국무역대표부(USTR) 사무소는 “WTO 역사상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관세철폐 협상이 될 것”이라며 “글로벌 교역에 있어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”고 강조했다.

USTR 사무소에 따르면, 반도체 및 자기공명영상(MRI) 장치, GPS 장비, 프린터 잉크카트리지, 비디오게임 콘솔 등은 관세가 완전 철폐되며, 품목 리스트는 ITA에 참여하는 80개국에 보내져 검토된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.

유럽연합(EU)은 모든 당사국이 7월24일 마감시한까지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FT에 따르면, 한국은 당초 LCD(Liquid Crystal Display)와 LiB(Lithium-ion Battery) 등 주요 수출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협상에 반대해왔으나 ITA 대사회회에서 반대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.

ITA 당사국은 9월 단계적인 관세철폐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, 2015년 말 기술협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7/20>